

2007년 한·몽골

통계협력회의 결과 보고

2007. 8.



통 계 청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차 례 >

I. 회의 개요

1. 회의명	1
2. 일시 및 장소	1
3. 한국 대표단	1
4. 회의 주제	1

II. 회의결과

1. 주요 일정	3
2. 주요 회의내용	4
3. 정책적 시사점	12

III. 수집자료 및 한국 대표단 발표자료

1. COUNTRY REPORT: National Statistical System of Mongolia(몽골의 국가 통계시스템)	13
2. 한국 대표단 발표자료 목록	34

IV. 협력회의 방문후기

1. 한·몽골 통계협력회의를 마치고	35
2. 나담축제(NAADAM FESTIVAL)란?	40

<첨 부> : 한국 대표단 발표자료(별첨)

- 1) 한국통계청의 표본조사 소개
- 2) 개도국을 위한 자료처리시스템 구축 연구
- 3) 한국의 통계 품질 관리
- 4) 개도국의 대규모 통계조사 ICT 지원 모델

1. 회의 개요

1. 회의명

- ▣ 2007년 한·몽골 통계협력 울란바타르 회의

2. 일시 및 장소

- ▣ 일시 : 2007. 7. 9(월)~7.13(금).
- ▣ 장소
 - 몽골 통계청(울란바타르) : 7. 10(화)~7. 11(수)
 - 테를지 국립공원(게르체험) : 7. 12(화)~7. 13(수)

3. 한국 대표단

- ▣ 단장 : 제정본 통계정책국장
- ▣ 단원
 - 김진 사무관 (지역통계과)
 - 박기봉 사무관 (정보서비스과)
 - 김유선 주무관 (품질관리과)

4. 회의 주제 및 발표자

- ▣ 7.10(화), 몽골 통계청(울란바타르)
 - 한국통계청의 표본조사 및 통계품질 관리 소개
 - 한국측 : 제정본 통계정책국장, 김진 사무관, 김유선 주무관

- 몽골측

- 행정관리국장 (BAJIIKHUU Khorol)
- 조사방법 연구개발 국장(DEMBEREL Ayush)
- 자료처리/기술국장 (B. TSERENKHAND)
- 통계청장 비서관 (TUUL Yumsuren)
- 인구사회통계과장(OYUNCHIMEG Dandar)

- 몽골통계청 조직 현황 소개 : 행정관리국장
- 한국 통계청 표본조사 샘플링 소개 : 김진 사무관
- 한국 통계청 통계품질 관리 : 김유선 주무관

▣ 7.11(화), 몽골 통계청(울란바타르)

○ ICT 관련 자료처리시스템 소개

- 한국 측 : 제정본 통계정책국장, 박기봉 사무관

- 몽골측

- 조사방법 연구개발 국장(DEMBEREL Ayush)
- 자료처리/기술국장 (B. TSERENKHAND)
- 인구사회통계과장(OYUNCHIMEG Dandar)

- 개도국을 위한 자료처리 시스템 연구 : 박기봉 사무관
- 개도국의 통계조사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지원 모형

II. 회의 결과

1. 주요 일정

7. 9(월) : 출국

울란바타르 도착 : 24 : 30

7. 10(화) : 몽골 통계청 방문 및 회의(1차)

09:00~10:00 : 몽골 통계청 행정관리국장 예방

10:00~11:30 : 몽골 과장단 면담 및 몽골 통계청 현황 브리핑

11:30~12:30 : 국가 역사박물관 견학

12:30~13:30 : 오찬(몽골 행정국장 주관, Gate 레스토랑)

14:00~17:00 : 한국통계청의 표본조사 및 통계품질 관리 소개

17:30~ : 만찬(몽골 행정국장 주관, 울란바타르 레스토랑)

7.11(수) : 몽골 통계청 회의(2차)

09:30~12:00 : 몽골 전통 나담 축제 견학

12:30~13:30 : 오찬(몽골 행정국장 주관, 몽골레스토랑)

13:30~16:00 : ICT 관련 자료처리시스템 소개

18:00~19:00 : 만찬(통계정책국장 주관, 한식당)

7.12(목) : 몽골 현지문화 체험

09:00~11:00 : 울란바타르 출발 → Terelj 국립공원 도착

12:00~14:00 : 오찬 (몽골 행정부국장 주관, 현지 식당)

14:00~18:00 : 현지 문화답사(전통 가옥 게르 체험)

7.13(금) : 현지 문화체험 및 귀국

09:30~16:00 : 현지 체험 및 문화답사

16:20~17:10 : 몽골 통계청 행정관리국장 방문

20:20~21:00 : 칭기스 공항으로 이동

01:00~04:30 : 출국 및 인천공항 도착

2. 주요 회의 내용

▣ 몽골 통계청 행정관리국장 예방

한국 통계대표단(단장: 제정본 통계정책국장)은 한-몽골 통계협력회의에 앞서 7. 10일 09:00 몽골 통계청 행정관리국장을 만나 두 나라의 통계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제정본 통계정책국장은 한국의 통계 작성과 IT 구축 경험을 최대한 몽골에 제공하고 양국 통계기관간의 협조체제가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 몽골 통계조직 및 주요 현황 발표

○몽골 통계청에서는 몽골 통계청의 조직과 주요 현황을 발표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

- 몽골 통계청의 조직
- 통계법 관련
- 표본조사 현황
- 조사체계

○몽골측 주요 참석자

- 행정관리국장 (BAJIIKHUU Khorol)
- 조사방법 연구개발 국장(DEMBEREL Ayush)
- 자료처리/기술국장 (B. TSERENKHAND)
- 통계청장 비서관 (TUUL Yumsuren)
- 인구사회통계과장(OYUNCHIMEG Dandar)



【몽골통계청 조직 개요의 발표를 준비하는 행정관리국장님】

▣ 한국 통계청의 표본 조사 및 통계품질관리 소개

[주요 발표 내용]

- 통계청 조직
- 가구 대상 표본조사 개요
- 사업체 대상 표본조사 개요
-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설계
- 가계조사 표본설계
- 농가경제조사 표본설계
- 사업체 통계조사 표본설계 개요
- 통계품질관리에 전반에 대한 내용

○ 몽골측 주요 참석자

- 조사방법 연구개발 국장(DEMBEREL Ayush)
- 자료처리/기술국장 (B. TSERENKHAND)
- 통계청장 비서관 (TUUL Yumsuren)
- 인구사회통계과장(OYUNCHIMEG Dandar)
- 업무관련 실무자 3명

- 한국대표단에서는 한국통계청의 표본 조사 개요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전반에 대한 작성 개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관하여 발표했다.

[주요논의 사항]

- 국부조사의 조사내용 및 목적
: 국가의 부(Wealth)정도를 측정하기 위함
- 노동력조사의 자료수집 후 공표시기
: 자료수집 후 한달 이내

- 연동시스템 방식 및 추정결과
 - : 한국의 연동시스템의 36-시스템으로, 응답자가 36개월 응답한 후 제외되고, 매월 약 900여 가구(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씩 가구를 교체하는 방식임
- 가계조사의 조사담당직원의 지위(정규직/비정규직), 전공, 학력
 - : 가계조사의 조사원은 정규직원을 원칙으로 하며, 일시적 인원 결원시 임시조사원을 채용하며, 전공과 학력은 불문이지만 최근 통계학과 출신의 대졸학력인 조사원이 증가하는 추세임
- 연간통계조사의 조사원 운영방식(정규직원 투입/임시조사원 채용)
 - : 매월경상조사는 정규직원이 담당하고, 연간조사는 임시조사원으로 구성됨. 연간조사의 경우 정규직원은 해당 통계조사에 대한 총괄 및 지도를 담당하고 있음.
- 통계개발원 업무내용
 - : 통계개발, 통계개선, 통계분석 및 대외적 협력 업무를 담당함
- 인구이동 및 출산통계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여부
 - : 표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신고 및 보고통계를 활용하고 있음
-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빈곤통계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여부
 - : 공식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활용하기도 함
- 가계자산조사 실시목적
 - : 가구의 소유자산(부동산, 채권 등)과 구매력 등을 파악하기 위함
- 사업체 표본설계에서 절사법 또는 응용절사법 적용사례
 - : 대부분의 사업체 대상 통계조사는 절사법 및 응용절사법을 적용하고 있음



【한국통계청의 표본조사 개요를 발표하는 김진 사무관】

▣ 개도국을 위한 자료처리 시스템 연구 발표

[주요 발표 내용]

- 개도국의 ICT 현황과 문제점
- 개선 방안
- 개도국 자료처리 통합 시스템 제안
- 시스템 구성
- 무선인터넷 관련 내용

○몽골측 주요 참석자

- 조사방법 연구개발 국장(DEMBEREL Ayush)
- 자료처리/기술국 (B. TSERENKHAND)
- 인구사회통계과장(OYUNCHIMEG Dandar)
- 업무관련 실무자 3명

- 한국대표단에서는 개도국의 ICT 현황 및 문제점을 방글라데시 통계청의 자문사례를 바탕으로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으며, 또한 개도국의 통합 전산처리시스템 제안과 무선인터넷에 관한 소개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통계정책국장님】

[주요논의 사항]

- 최신 기술의 도입 방법

: 최신 기술 도입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몽골 통계청 직원이 처음부터 함께 참여하여 개발 및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함.

그러므로 몽골의 상황에서 가능한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추천함

- 새천년개발목표(MDG)에 관한 통계청의 역할은?

: 통계청은 해당이 없음

- KOICA 협력사업에 대한 통계청의 역할

: 2006년 하반기 방글라데시 통계청에 코이카의 IT 전문가로 파견되어 시스템 관련 교육과 전산처리 시스템 구축 제안을 하였으며, 현재 코이카에서 본 사업에 대한 ISP를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몽골 통계청이 KOICA와 협력 사업을 할 경우 통계청이 기술자문과 통계교육 등 가능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자료처리시스템 연구를 발표하는 박기봉 사무관】

▣ 현지 문화답사(전통가옥 게르 체험)

[주요내용]

- 몽골전통 가옥 게르 체험
- 칭기스칸 박물관 관람
- 기타

○몽골측 주요 참석자

- 행정관리 부국장(AMARBAL Avirmed)
- 국제협력과 담당직원 등 3명

○ 한국대표단은 테를지 국립공원에 마련된 몽골 전통가옥의 체험과 함께 칭기스칸 박물관 등을 견학하면서 몽골의 실생활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테를지 국립공원의 전통가옥 게르 체험 참가단】

3. 정책적 시사점

▣ 2007년 한국-몽골 통계협력 울란바타르 회의에서는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몽골에 공유하는 형식을 채택하였으며 몽골 측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바 향후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통계협력단은 별첨 4 종의 발표 및 제공 자료를 준비하여 상호간에 내실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음.

- 특히 표본조사와 관련된 분야는 몽골 통계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통계방법연구개발국의 관련 직원이 배석하여 성황리에 토론이 이루어짐.

○ ICT와 통계분야 협력에 많은 관심이 갖고 있으며, 방문기간 중 한국에 파견한 2명의 몽골 통계청 직원 외에도 추가로 ICT와 통계 교육을 희망하여, KOICA를 통해서 추가 교육 지원을 요청한 상태임

▣ 양자간 협력회의에서는 통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KOICA에서 통역의 경험이 많은 통역을 소개해 주어서 발표 및 토론은 물론 일정 전반을 매끄럽게 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Ⅲ. 수집자료 및 한국 대표단 발표자료 목록

1. COUNTRY REPORT: National Statistical System of Mongolia(몽골의 국가 통계시스템)

1. 국가통계시스템, 법규정 그리고 국회, 대통령과 정부와의 협력

1.1 기원, 몽골의 국가통계 서비스의 설립과 발전의 개관

몽골 통계시스템의 전통은 수백 년 전으로 올라가며, 역사적 근원과 참고자료에 의하면, 몽골의 선조인 Uunnus가 잘라진 나무를 사용하여 기록을 표시하여 가축을 셈하는데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13세기 후반 거대한 국가를 확립하면서, 몽골제국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본이 되는 그들의 인구를 계산하곤 했다. 1921년 국민혁명은 몽골의 회계와 통계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 시기를 기록했으며, 경제 조사와 집계와 발전, 특히 과학적인 통계 발전, 위해 공헌하는 환경과 상황을 창출했다.

1924년 채택된 몽골 헌법은 모든 주의 집계와 조사 활동을 법제화하는 근대 통계의 기초를 마련했다. 국가의 최초인 국회의 결의안은 처리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내포하는 집계와 통계조사를 위한 기본조직을 확립함으로써 집계와 조사활동의 시발점을 제공했다. 그러므로 1924년 11월 11일 ‘자료 집계과’는 6명의 직원을 보유한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 산하에 최초로 조직되어, 몽골의 통계사무소 발전을 위한 기초를 확립하였다.

1929년 집계과는 12명의 직원을 보유한 몽골 정부 산하의 청으

로 재구성되었다. 집계과는 모든 센서스와 통계활동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책무를 맡았으며, 국가 경제 정책을 위해 필요한 모든 통계 자원과 참고자료의 개선과 가공 처리에 집중되었다. 몽골 국민 혁명당, 중앙 위원회의 정기회기가 1940년 12월에 소집되었고, 1941년 국가 경제 발전을 논의했다. 그때 이후로, 국가 사회, 경제 발전은 연간 계획에 근거를 두기 시작했고, 계획의 검토와 차후 계획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에 대한 집계 필요성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1941년 정부 산하의 '통계과'가 '기획과'와 '통계감사과'로 재구성되었고, 1945년에 '국가계획위원회'의 '통계과'로 재구성되었다. 1945년 11월 23일, '국가상임간부회'의 결의안 #106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가 MPR의 '각료심의회' 산하에 설립되었다. 1958년 4월 6일 각료심의회는 칙령에 따라서 계획위원회의 통계과는 3개 과와 2개의 팀(unit)로 구성된 계획위원회의 통계사무소로 확장, 변경되었다.

1960년 4월 8일, 위대한 국민의 상임간부회의 칙령에 따라서, 통계조직은 몽골에서 통계청의 최초 설립 후 36년 만에 내각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각료심의회내의 중앙 통계사무소로 재설립되었다.

1960년 4월 13일 각료심의회는 결의안 #183에 따라 통계청은 10개과와 팀, 19개 지방 사무소, 389개 출장소로 확장되면서, 전국규모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통계서비스를 창출하였다.

1962년 기획과 통계업무를 담당할 대리자가 모든 출장소에 지명되면서 지역통계관리 업무를 준비했다.

몽골 내에서 국제적 의미로서 '통계'의 세계화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각료심의회는 '통계 기능 개선을 위한 법령 설정을 채택하였고, 이로 인해 본부와 지방사무소가 통계라는 단

어를 사용하는 현재 명칭으로 개명하였다.

법령은 명칭의 변경 외에도 통계 조직의 권한을 확장했고 그들에게 다음의 부가적인 책임도 재가했다. - 통계에 관한 법의 입안, 통계작업의 기계화 책무, 원시자료입력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 제공, 간행물의 발간 및 가구 소득 조사의 착수 등-

통계에 관한 최초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각료심의회는 물론 당중앙위원회의 법령과 훈령에 의해서 일상의 통계 기능이 통제되었다. 1940년 7월 8일 국회 31차 회기와 동년 5월 31일 각료심의회 21차 회기에서 기획, 통계와 감사 활동에 관한 일련의 절차과정이 승인되었다. 그 절차과정에 따르면, 각료심의회 내의 ‘기획/통계/감사국’은 국가 경제·문화발전에 관한 모든 계획의 이행과 실행을 수행하는 책임을 담당할 것을 규정한다.

1958년 4월 6일의 각료심의회 결의에 의하면, 통계국을 국가발전, 연간 및 장기 계획의 이행에 관한 분석 보고, 국가 중요 자원의 관리 및 관리 현황, 경제 분야의 발전 모습과 비율 등에 관한 자료 집계와 공표를 담당하는 국가 중심의 경제·문화 자료처리 조직으로 정의하는 통계국 헌장을 개정했다.

1960년 4월 6일 각료심의회 결의안에 따라 통계국 헌장은 일반 조항, 기초 기능과 책임, 권리에 국가 통계청의 권위를 정의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헌장은 통계 서비스의 과학적 특성을 개선하고 통계 서비스가 강화된 통합 관리, 방식과 방법론 및 원리를 추가한다고 규정한다.

헌장은 또한 정부와 당의 국가 경제 계획과 발전에 관한 결정과 결의가 통계 서비스를 위한 지침임을 규정한다.

1980년 MPRP 중앙 위원회와 각료심의회는 허위 통계 보도와 정부를 속이는 것을 금하는 노력의 강화가 목표인 결의안 31#를 승인했다. 결의안은 국가경제 계획의 수행에 관한 의도적인 허위 보도에 관한 모든 행위의 즉각 종결 요구와 그러한 위법행위에 관한 엄격한 징벌 조치를 규정한다.

1980년 12월 22일 MPR의 국회 상임간부회 법령에 의해 국가 계획과 다른 통계 자료의 작성에 관한 허위 보고에 대처하는 규정을 지닌 형사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0년 통계청은 국가통계청으로 재건되었다. 이때는 몽골이 초기 의회내각 체제로서 다양한 형태의 재산 소유권을 허용하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전환된 시기였다. 몽골은 일반적인 관례 기반의 현존 통계 자료수집 방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관례와 원칙의 도입은 물론 특정 조사의 방법과 다른 현대적 방법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1.2 통계청 조직과 통계청의 법령규정

한 국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전환을 시작하게 되면, 그 사회의 통계 조직의 역할은 재정의 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규정도 개정 되어야 하고, 그 조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방법론의 도입이라는 실질적인 필요에 직면하게 된다.

통계자료 수집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례에 대한 이전의 경험적인 방식은 폐지되고, 특화된 조사와 시험적인 연구 같은 다른 통계적 방식으로 그들을 대체되는 것이 수락되었고, 새로운 민주주의 시

시스템에서 통계 활동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적 환경이 요구되었다.

선진국이 특별법을 통해서 통계활동을 규율하는 표준 경험을 본 받아서, 1991년 몽골에서 통계법의 입안을 발전시키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1994년 국회는 몽골에서 통계활동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허용하는 우호적인 법적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법령인, 몽골 통계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최초의 통계법은 5개의 장과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일상의 통계 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규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 - 통계활동의 원칙, 통계보도 시스템, 통계종사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통계기관의 조직, 통계기관의 권리와 의무, 통계정보보호 및 의무 등을 망라한다. 통계법은 통계시스템이 실행기관 하에서 운영되는 것을 규정한다.

통계법은 통계 활동에 대한 개선된 법적 환경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UN이 회원국가에게 권고한 공식 통계에 대한 10가지 기본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1997년, 1999년과 2004년 각각 개정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계 조직은 과학적 기반의 방법론을 보유한 독립적인 전문 기관이라고 정의되었고 법제화하였다.

진행 중인 사회 · 경제적 변화의 관점에서 통계법은 NSO가 공식적이고 공평한 통계를 생산하고, 정보 보안을 유지하며, 사용자에게 확실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몽골 통계법의 4장 11조 2항에 따르면, 몽골 통계기관의 조직은 국과 지방 통계청와 도, 군(2차 행정기관)의 기관장 및 수도와 구(수도 2차 기관) 기관장의 관리 하에 있는 기초조직(unit)을 보유한 독립적인 중앙 국가 통계청으로 요약된다. 통계활동은 부지사

나 행정직원에 의한 2차 행정 레벨 그리고 주지사에 의한 최소 행정단위 레벨에서 관리 되어진다.

NSO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감독을 받는다.

NSO는 국가의 전반적인 통계활동에 있어서의 통합된 전문적 관리 및 협력, 자료수집 방법론, 규칙, 분류 및 표준의 개선, 과학적 기반, 분석 및 수집된 자료의 추정, 장기 및 중기 경제-사회 지표를 사용한 생산 예측과 모델의 개선 등을 포함한 총 22개의 주요 임무를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다.

NSO는 국회대표, 정부, 과학 연구소 및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국가통계 심의회의 지원을 받는다.

NSO는 정부와 내각과 정부기관에 의해 작성된 통계정보와 자료가 공식통계와 겹침과 중복의 방지, 방법론적 지원의 무결성 유지 보장, 지표, 방법론 및 처리과정의 승인 통계정보의 범위와 정확성을 평가 할 의무가 있다.

UN이 공식통계의 기본 원칙을 승인한지 15년이 흘렀다. 몽골은 공식통계활동에 관한 통계개선을 위해 이들 원칙과 법률과 방식을 채택하며 적용한다.

1.3 국회, 대통령과 정부와의 협력

몽골 통계법의 정의에 의하면, ‘통계사용자’라는 용어는 자신의

활동에 있어서 통계정보나 자료를 사용하는 몽골인, 외국시민과 무국적자, ‘법적 존재’를 의미한다. 아래 사용자들은 이 문맥에 적용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 정책 입안자 및 결정권자
- 과학적 연구자와 학자
- 교육 기관
- 자료 처리 담당자 및 전문가
- 사업 관리자
- 사업가
- 비정부 조직
- 개인과 일반 대중

공식 통계정보와 자료의 주요 사용자는 국회, 대통령과 정부를 포함한다. 국회의로의 보고에 추가해서, NSO는 또한 행정당국의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수행한다. 국회에 보고하는 기관이 된다는 것은 통계청의 역할과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NSO의 독립적, 전문적 지위를 보장한다.

NSO는 몽골 대통령의 후원 하에 몽골의 등록과 보고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확장된 토론을 조직했다. 이 시스템은 국가가 통계 활동에 높은 관심을 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이벤트의 부분으로서 몽골 대통령이 2006년 10월 10일 국가통계청을 방문했다. 그 기간 동안 대통령은 그의 지속적인 지원을 표명했고 미래의 활동에서 고려될 이슈들에 대한 논평과 방향을 제시했다.

통계청장은 국회부위원회, 정부 그리고 다른 관련 기관들과 직접

협의를 하고 자문기관의 권한으로 국회 회기, 부 위원회 회의와 정기 각료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가지는 반면 통계 심의회는 국회, 정부와 다른 사용자들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새천년개발목표(MDG)가 2005년 국회 결의안 #25에 의해 재가되었다.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번영을 위해 MDG와 일관된 포괄적인 국가 발전 전략의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다. 몽골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고, 국가발전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지명된 실무작업팀에 통계청장이 포함된다. 통계청은 전략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임무를 떠맡았다. 이런 사실로부터 통계 정보와 자료에 대한 요구와 통계청의 사회적 역할을 알 수 있다. 관련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MDG의 기준 정의, 데이터베이스 생성, 가까운 장래에 통계청의 대상 집단이 될 국가와 국민 및 다른 사용자들에게 정보와 데이터 제공 임무가 NSO에 부여되었다.

통계의 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회합과 회의가 - 사용자 자문 모임, 다양한 조사와 연구 목적을 위한 지도 심의회 모임, 실무작업팀 모임, 내각 및 정부 부처 간 모임, 총조사 및 조사 정보 공표 모임과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훈련과정 - 다양한 계층을 위해 개최되었다. 또한 자문능력을 통해서 공식통계활동을 돕고 방법론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NSO에 영구적인 심의회를 두고 있으며, 통계인과 사용자를 연결하는 다리인 국회, 정부, 과학연구 조직과 사용자를 대표한다.

몽골의 통계법에 나와 있는 제공자로서, NSO는 통계정보와 자료 및 조사 결과의 공표, 통계의 투명성 보장, 정부조직에 대한 무상 통계정보 제공, 외국 또는 국제 통계 기관 및 다른 전문화된 기관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 몽골법과 다변적 조약에 규정된 범위까지 당사자와 협력 확립, 국가 경제 · 사회에 관한 통계정보 제공 등에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의 확립을 보장하기 위해, 통계청은 연간, 분기, 월간 기초자료로서 도 레벨에서 58개 통계 자료, 군(sub-province) 레벨에서 39개, 3차 하부(bag) 지역에서 39개, 수도에서 58개, 구(district) 지역에서 39개, 3차 지역(khoroo)에서 39개 및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으로부터 103종의 통계 자료를 수집한다.

NSO는 UNFPA, UNICEF, 세계 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구의 후원을 받아, 인구주택총조사(2000)와 사업체총조사(1991, 1994, 1998, 2006) 등의 총조사를 수행해왔다. 이들 기구에 후원으로 집행된 조사들은 ‘삶의 표준측정 조사(1995, 1998, 2002, 2003)’, ‘아동과 개발 조사(1996, 2000, 2005-2006)’, ‘출산율 조사(1998, 2003)’, ‘생활시간 활용 조사(2000)’, ‘노동력 및 아동 노동력 조사(2002-2003, 2006)’, ‘장애인 조사’, ‘사업체 노동자 조사’, ‘참여 생활 표준 측정 조사(2000, 2005)’ 와 다른 표본조사들을 포함한다.

이들 총조사와 표본조사의 결과는 공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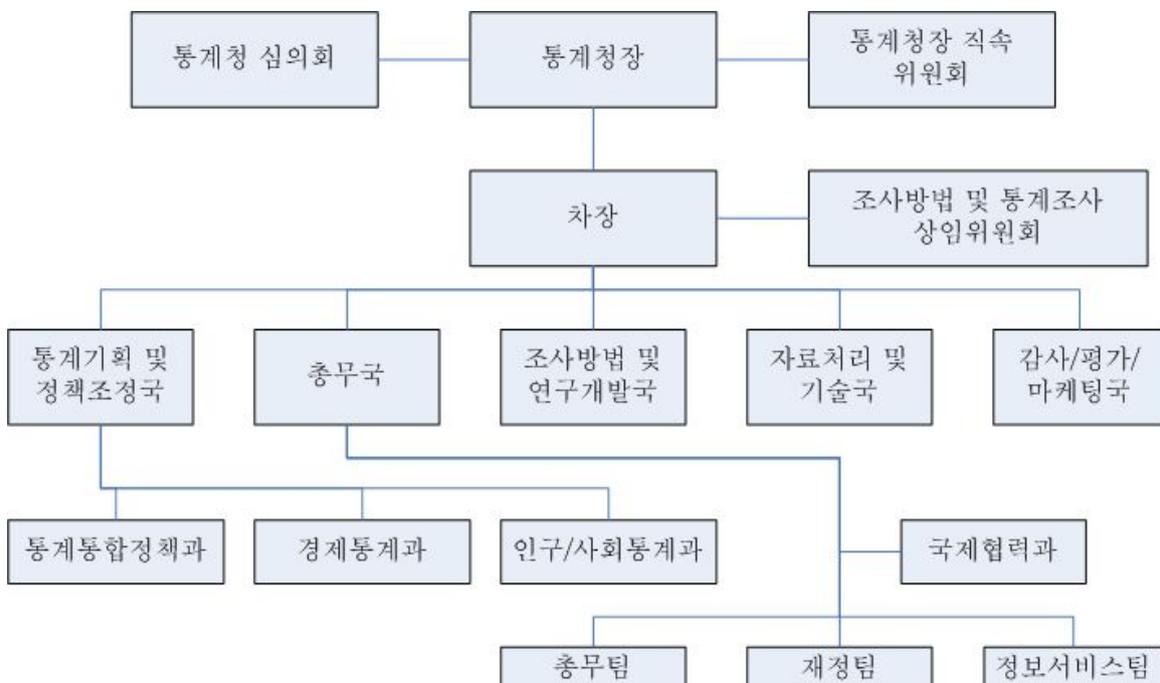
이들 활동은 통계방법론 개선과 합리화, 과학적 기반의 개선, 통계적 방식을 활용한 통계 정보와 자료의 분석 수행, 미래 전망 예측, 총조사 범위, 연구, 표본조사의 확장과 정보와 자료의 만들어내는 범위의 확대에 큰 도움이 되어왔다.

2. 몽골 통계청의 체계 및 조직

현재 몽골통계청의 구조와 조직은 공식통계 발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과 몽골의 통계법 및 그 부속 법, 그리고 제반 규정 하에서 통계청의 인력에 대한 훈련, 권한 및 의무 수행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통계청 본부 소속 국들의 기능

통계청장의 승인을 통해 본부는 통계기획 및 정책협력국, 행정관리국(총무국), 조사방법 및 연구개발국, 자료처리 및 기술국의 4개국과 독립적으로 구성된 감시, 평가 및 마케팅과가 각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1) 몽골 통계청 조직도

2.1 몽골 통계청의 조직도

2.1.1 통계통합정책과

이 과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통계활동 및 정보 기술 전략의 포괄적, 통합발전을 위한 목표와 정책의 정의
- 전략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의 시행
- 국제 표준 및 분류에 기반을 둔 국가표준의 개발 및 이행
- 국민계정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최적조건 확충
- 사업 및 가격에 대한 통계정보 진흥
- 통합정책과 센서스 및 통계조사에 대한 방법론적 관리 지원
- 국가 수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현황 및 추세 예측

2.1.2 경제통계과

이 과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경제지표와 조사방법의 향상
- 경제지표의 SNA에 대한 적용, 통계 포괄 범위의 확대, 정보의 정확도 제고, 영역별(분야별) 부가가치에 기반을 둔 실재적 예측, 영역별 주요 지표에 대한 조사의 품질과 효과성 제고
- 영역별 공식 및 행정통계에 대한 결합의 진흥, 능률화

2.1.3 인구/사회 통계과

이 과는 다음을 담당한다.

- 사회, 인구, 건강, 교육통계에 대한 지표 및 조사방법
- 국제 표준과 조사방법에 부합하는 표준과 방법론 도입
- 정보의 일관성(무결성)에 대한 향상
- 정보 포괄범위의 확대

- 특정 서비스 영역의 부가가치 계산, 표본조사의 품질과 효과성 향상
- 관련 영역의 공식 및 행정통계 작성 및 상호 보완

2.2. 행정관리국(총무국)

- 조직의 비전 재정립과 전략 개발을 통한 정책목표, 계획, 기획 그리고 프로젝트의 조화
- 관리 가이드 제공, 효율적인 조정을 통한 법 집행 지원, 인적, 재정적 자원의 배분을 통한 관리기능 향상, 가용 전문인력 양성 및 강화 지원, 효과적인 홍보 진흥, 국외 및 국제협력을 위한 방향 설정, 신속하고 효과적인 일반 행정업무 서비스, 공무원들을 위한 근무환경 및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조직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및 사용자에 대한 적시, 다면적 정보 제공, 통계생산에 대한 투명성 및 가용성 확보

2.3. 방법론/연구개발국

통계자료 방법론 개선, 통계분석 능력의 개선 및 미래 발전 방향이라는 상위목표 안에서 국가 방법론에 대한 결론 및 추천안, 국민 계정을 위한 절차와 도구, 방법론적 가이드라인과 국제기구의 추천안에 적합한 경제 및 인구통계의 처리 및 배포방법 개발,

2.4. 자료처리/기술국

- 자료처리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도입
- 통계정보목록, 조사결과 및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의 수집, 결합 및 처리
- 통계청의 내, 외부 통신망의 신뢰성 있고 안전한 운영의 보장
-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의 적정 조건 유지

-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 하드웨어의 유지관리 및 개선
- (협조와 참여를 통한)통계시스템 수준에서의 통합 기술정책 정의 및 와 정책의 이행보장 측정
- 간부(직원)의 전산기술의 개발 및 증진을 지원

2.5. 감시, 평가 및 마케팅 국

- 감시, 분석, 공표된 계획, 기획, 프로젝트 및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에 의한 목표달성 점검 지원
- 중앙 및 지방 통계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감시, 평가 및 조정
- 홍보정책 및 통계서비스 방향과 수용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통계정보의 마케팅 진흥업무에 대한 방향에 대한 정의

3. 몽골 국가 통계시스템 발전 프로그램과 계획

2004년 몽골 국회에서 처리한 몽골 통계법 개정은 국가 통계 지표를 산정하고 총조사와 통계조사를 수행하는 단기적 목표와 목적을 정의하는 프로그램을, 통계청의 전권 내에서, 발전시키는 권한을 국가 통계청에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은 명백한 설정 전략과 정책에 대한 통계 서비스에 근거하고 통계서비스의 과학적 토대와 성격을 향상하는 실제적 필요로부터 유래되었다. 이 조항에 따라서, ‘2006-2010 공식통계 개발 프로그램’이 발전되었고 정식으로 비준되었으며, 그 프로그램은 UN 통계 위원회의 권고안과 통계 발전계획의 정신과 개념에 부합되고 조화를 이룬다.

이 프로그램은 통계 서비스를 위한 중, 단기 방향을 정의하는 기본 문서로서, 통계조직의 비전, 임무, 원칙, 정책과 전략적 목적을 결정하고, 즉석의 목적과 목표를 실행하며, 이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확인하고, 계획과 실행된 방법에 있어서 언급된 목표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요구되는 인력 수용 능력과 다른 필요한 메커니즘을 획득하는 수단과 방법들을 정의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능한 전문가, 조직, 고문단, 기술전문가 등의 집단적 노력의 산물이며, UNDP,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TACIS 프로그램, 호주 통계국, 국민서비스 심의회, 관리 협회 등이 행한 귀중한 논평과 조언을 반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1992년 UN이 정의하고 회원 국가에 추천한 10가지 공식통계 원칙을 준수한다. 주요 원칙은 몽골 통계법에 정식으로 기술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몽골 정부와 국민의 참여에 의존하며 그들의 지원과 승인의 표현이다. 이것은 국가통계조직의 가장 활동적이고 중심적인 참여에 의해 발전되고 행해진 진정한 국가 문서이다.

몽골의 공식통계 서비스의 발전은 국가의 종합적인 사회·경제 발전과 일치해 왔다. 몽골 통계 조직의 개혁과 변화는 아래의 중요한 목표를 겨냥한다.

- 통계정보의 국제 표준 준수
- 통계 서비스의 진보된 기술과 기법의 도입 및 국가 표준 정립

- 전문적인 핵심그룹과 인적 자원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위한 관리 혁신 수행
- 통계서비스 분야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 확장

공식통계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장래에 국민계정시스템의 완전 도입, 자료와 통계 조사의 품질 향상 및 자료처리 시스템의 국제 표준 확립과 통계조직의 개혁 이행 등이 필수요건이다.

‘2006-2010 몽골 공식통계 발전 프로그램’은 공적인 요구에 대처하고 공통된 국제적 방법론에 기초하며 고객에게 통계서비스 분야의 진보된 정보기술의 도입을 바탕으로 신속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공식 통계의 중요한 목적을 정의한다.

이 프로그램의 이행으로 다음의 성과와 결과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용자의 요구에 완전히 일치하고 공통된 국제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개선된 품질과 효율적인 통계정보 서비스가 적절하게 적재 적소에 제공된다.
- 자료의 보증범위가 향상되고, 통계서비스 분야의 정확성, 객관성과 신속성이 상호 신뢰의 창출로 개선되며, 통계 생산자와 사용자를 위한 혁신적인 환경이 창출될 것이다.
- 과학기반의 연구소로서 통계청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 공통적인 국제 방법론의 도입과 국가 레벨의 SNA-93의 이행으로 국가의 공식통계발전의 수준을 선진국의 수준과 근접하도록 이끌 것이다.

중기 통계발전 프로그램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NSO는

2006-2010기간에 관련된 기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착수될 288종의 활동과 조치를 목록으로 하는 법령 종합기본계획(189개는 개정되었거나 개선된 법령인 반면, 99개는 새로운 발의와 조치인)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이들 조치와 활동 등은 프로그램에서 발표된 목적과 목표의 이행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었다. 종합기본계획은 통계청과 협조 기관 등이 예상된 산출물, 소요되는 기간, 관리 대상을 정의한다. 통계조직은 주어진 기간 내에서 성취할 프로그램의 범위내의 목적과 목표를 공포하고, 그 기간 동안 요구되는 자금과 재정 재원을 반영하고 연간 사회·경제 지침을 책정하여 궁극적으로 전체 예산으로부터 지출한다. 연간 시행계획의 이행을 실천하고 프로그램과 종합기본계획은 정기적으로 감시되고 평가된다. 감시와 평가 과정은 통계사용자의 견해와 의견을 광범위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다른 조직의 대표단을 국가통계심의회와 연동한다.

일별 감시와 평가는 NSO의 감시평가국에 의해서 수행된다. 프로그램의 이행을 보장하는 종합기본계획은 2006년 2월 17일 국가통계심의회에 의해, 국회 결의안에 의해 규정된 것처럼, 논의되고 재가 되었다.

NSO는 프로그램 이행의 과정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프로그램의 상태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국회 결의안내의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기금의 정의를 통해서 공식 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중기 프로그램의 이행을 확고히 하고 보장한다. 국회는 정부내각에 중앙과 지방예산, 교부금과 외국 및 국제 협력기관의 원조로부터 연간 지출(전체 프로그램 기간의 총 120억 MNT로부터)의 협조와

관리를 이행하도록 계획되어있다. NSO는 중앙과 지방 레벨에서 프로그램의 이행을 관리하고 몽골 통계시스템의 모든 레벨에서 관리와 기획을 개선하고 향상하는 책임을 담당한다.

NSO는 또한 몽골 통계 발전 전략과 목표를 지원하고 그것에 관한 이행의 감시 및 평가를 위하여 국제기구의 지침과 권고안을 상세한 계획과 활동으로 전환하는 책임을 담당하는 주요한 기관이다.

1990년 초, 몽골이 중앙계획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자유 시장 경제 국회 민주주의로 전환을 시도한지 16년이 흘렀다. 역사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몽골은 UN이 회원국에서 권고한 10개 원칙을 준수하는 공식 통계를 발전시키는데 전념해왔으며, 통계에 있어서 특히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이론과 방법론의 향상을 강조함과 함께 통계정보와 자료의 객관성, 접근성, 개방성 및 신속성을 보장해왔다. 공통된 국제 표준에 일치하는 방식, 방법론과 과학기술에 기인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통계 기관을 설립했으며, 국제 공동체와의 관계와 협력의 확장을 모색한다. 그 과정에서 몽골은 확실한 진보와 다른 나라를 위한 본보기로서 도움이 되는 경험을 얻었다.

몽골 통계청은 몽골 국회에 보고하는 실행 단체들로부터 독립적이다. NSO는 정치적 압력과는 자유롭게 운영되고, 몽골 국회를 지원을 하고 있다. NSO의 독립성과 자주성에 관한 명시로서 몽골 국회는 2005년 가을 회기에서 공식통계 발전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채택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했고, 요구되는 기금을 정식으로 해결한다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입법 분야의 부분에 관한 조항으로서 몽골의 공식통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지원의 표현과 공약은 물론 NSO의 성공과 업적에 대한 치하를 나타냈다.

시스템 범위 내의 통계 운영을 조정하고, 통계서비스를 위한 고도의 과학적 이론과 특징을 보장하는 통합된 관리를 규정하는 권한의 위임에 따라, NSO는 행정통계를 위한 지표, 방법론과 지시를 승인하고 공식통계와의 자료중복 제거를 통한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통계청의 진정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게다가, NSO는 총조사, 표본조사 및 자료점검을 위한 공통의 처리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수행조직의 인가된 기관을 통한 국가 단위의 총조사, 표본조사 및 집계수행을 평가하도록 위임받았다.

수행 조직에 대한 전문적인 통계 조언과 권고안을 제공하는 NSO의 기능은 조언자 신분으로 내각의 정기회기에 통계청장이 참여함으로써 실현된다. NSO는 국회에 정부기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정부의 활동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기관으로서의 추가적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통계정보 사용자는 물론 국회, 정부 및 관련 과학 연구 기관 등에서 구성된 대표단이 포함한 국가 심의회는 공식통계에서 NSO를 지원하고 통합된 방법론적 지원을 제공하는 위임 업무가 실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NSO에 의한 2006-2010 공식 통계 개발 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원하는 종합기본계획의 발전, 논의 및 승인은 국가 심의회가 행하는 범위, 한계 및 역할을 중요성을 반영한다.

NSO는 통계지표에 적용한 방식과 방법론이 공통된 국제 표준과 관례에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기 위해 외국, 국제 통계 기관 및 연구소와 능동적으로 협력을 해오고 있다. NSO는 UN이 회원 국가들에게 권고하는 2010까지 SNA-93의 완전 도입과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NSO는 UN 활동, UN의 시스템 조직, 특화된 기관과 부속 지역 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해 오고 있다. 통계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국가 통계조직과의 효과적인 협력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고수한다. UN ESCAP과 Paris-21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통계청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거행된 ‘2006 통계 전략적 기획’에 관한 동북아시아의 통계 기관의 고차원 포럼을 성공적으로 조직했다. 포럼의 대표단은, 아시아·태평양과 국제기관의 국제통계 조직에 대한 촉구(appeal)인, 울라바타르 발의를 토론하고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공식통계 개선과 향상을 위한 몽골 통계청의 지속적이고 최선의 노력에 힘입어, 몽골이 호주, 태국과 미얀마와 함께 공동 후원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4월 6일-12일까지 열린 UN ESCAP 62차 세션의 ‘아시아 태평양국가의 통계 역량 강화’ 결의안이 결실을 맺었다. 이결의 안에 따르면

- 지역 국가들의 통계서비스 발전 지원, 공식통계정보의 수집, 통합, 자료처리, 분석, 공표와 사용에 대한 역량 강화
- 국제 포럼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한 새천년 개발목표와 다른 개발 목표의 이행 감시 역량의 강화를 지원
- 국제적 권고안, 지역 레벨의 발의안의 이행 강화
- 개발도상국 국가 통계기관간 국제적 협조의 강화, 특히 강조되는

- 공식 통계 발전을 위한 노력의 확립과 강화를 위한 국제적 역량 지원
- 사회, 경제 및 환경 지표를 망라한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의 공표 및 사용을 지원
- 국가 통계 기관간의 노력 중복을 피하고 부담을 경감하는 관점에서 지역과 국제 수준의 통계 역량 건설, 공식통계 자료 수집에 대한 협력 증진을 목표로 다른 조치들과 발의권의 보증

몽골의 국가 통계청의 노력과 업적은 국회 민주주의와 UN이 회원 국가들에게 권고한 주요 통계원칙의 도입과 이행의 완전한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통계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2004 세계은행 국가 조사에 의해서 확실히 뒷받침되었다. 그 조사에서 몽골은 호의적인 법적 환경, 효과적인 관리와 수행 효율성에 대한 지표에서 세계 평균의 14점 높은 80점을, 정보와 자료수집 지표에서는 20점 높은 80점을, 완전 보도된 지표에서는 16점 높은 90점을 총괄 성과에서는 17점 높은 80점을 받았다.

4. 다른 국가와의 양자가 협력

4.1. 중국 국가통계청

[2002년] (12명 중국 방문)

인적 자원 정책, 법과 규칙 제도, 통계정보의 수집, 자료처리, 공표 방법론, 가구소득, 지출, 노동력 및 보건 통계와 인구총조사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방법론에 관한 지식 경험 연구

[2003년]

직원 훈련과 재교육, 기술 장비의 개선 및 업그레이드, 역량 강화

및 자료 교류 분야

4.2 호주 통계국

[2004년]

- 통계 간행물, 지침서, 회보 교류
- 통계 방법론의 정보 교환 및 경험 공유
- 전문기술, 국가통계청의 체계, 조직 및 통계활동의 경험과 지식 교류
- 전략계획 발전와 전략적 중요성의 다른 쟁점에 관한 권고안과 훈련의 교환, 제공 및 수행

4.3. 터어키 통계청

[1990년]

국제통계표준에 부합하는 통계 방식과 방법론의 정제, 장비와 기술 역량 증진, 직원 훈련

4.4. 독일 연방통계청

- 통계 간행물, 회보, 보고서와 다른 자료 교류
- 국제 학술 및 과학 행사의 훈련 및 공동참여를 위한 학자, 연구원, 전문가 및 지도자 교환 및 과학 정보 교류
- 체계, 조직 및 통계활동과 가능한 범위에서의 몽골 훈련 과정 수행 경험과 지식 공유를 위한 직원과 직원 팀의 교류
- 팀, 직원, 지도자 및 전문가 교류와 관련된 비용은 현재의 법적 규정과 가능한 예산 재원의 범위 내에서 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모색해왔음

4.5. 대한민국 통계청

[2001년]

- 통계 기획과 관리(통계 표준, 통계협력, 현장 표본, 표본조사 방법론 등)
- 경제 통계(산업통계, 농업 통계, 서비스업 통계, 경기순환분석, 전자상거래 등)
- 사회와 인구통계(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 노동력 통계, 사회 통계)
- 통계정보 관리(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자료 보급 등)

4.6. 일본 통계국

[2004]

- 자료 전환시스템의 개선

2. 한국 대표단 발표 자료 목록(파일 별첨)

- 1) 한국통계청의 표본조사 소개
- 2) 개도국을 위한 자료처리시스템 구축 연구
- 3) 한국의 통계 품질 관리
- 4) 개도국의 대규모 통계조사 ICT 지원 모델

IV. 협력회의 방문후기

1. 한·몽골 통계협력회의를 마치고

첫째 날

자정이 넘은 시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칭기스 공항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안전 검사를 받기위해 내렸다 타기를 반복하고 칭기스 공항의 세관을 통과하기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몽골의 첫 대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가로등도 없는 평탄치 않은 킁킁한 밤길을 달리는 차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상상을 해본다. 과연 몽골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호텔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면서 첫날이 지나갔다.

둘째 날

아침식사를 하러 식당에 내려갔다. 아직도 아침식사 준비가 덜 된 상태였다. 어제 저녁 분명히 식사시간을 알려주었는데 전달이 잘 못된 것 같다. 어렵게 아침식사를 하고 몽골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밴을 타고 몽골통계청에 도착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반갑게 맞아 주신다. 아쉽게도 통계청장님과 부청장님은 국회관련 업무 등으로 출장 중이셔서 방문기간 동안 만나 볼 수가 없다고 했다.

간단한 상견례를 하고 오전 업무에 들어갔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이 한·몽골 통계청간 협력일환으로 2명의 몽골 통계청 직원이 한국통계청에 연수를 갔다고 하시면서 양국 통계청간의 우호관계가 계속발전해서 향후에도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신다. 통계정책국장님께서 답례로 한국통계청의 앞선 조사 경험과 IT관련 기술의 제공을 통해 몽골 통계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협력요청이 들어오면 통계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직접 몽골 통계청의 조직체계와 현안을 브리핑 해주셨다. 발표 자료가 영어가 아니어서 아쉽기는 했지만 통역을 통해서 발표를 듣는 것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근처의 몽골 역사박물관을 관람했다. 몽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과거 내가 알고 있던 몽골의 모습이었다. 우리와 뿌리를 같이 해서인지 공통점이 많았다. 세계의 1/3을 정벌했던 찬란한 역사를 뒤로 하고 쇠퇴를 거듭하는 모습들, 젓줄인 ‘바이칼호’마저도 소련에 빼앗기고 내몽골 자치구는 중국에 빼앗기는 아픔을 겪으면서 독립과 공산주의를 거치면서 현재의 몽골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내는 역사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

오찬은 몽골식당(Gate Restaurant)에서 행정관리국장님의 주재로 몽골요리인 쇠고기 등으로 식사를 했다. 2001년 몽골을 방문한 경험의 소유자인신 단장님께서 몽골에 와서는 몽골요리를 먹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소고기와 양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몽골의 음식습관 중에서 특히 양고기 요리는 냄새가 나지 않고 맛이 좋은 음식이라고 하신다.

오후 발표에서는 한국통계청의 표본조사 소개와 품질관리방법에 관한 발표를 했고, 특히 표본조사에 관해서는 많은 질문과 토론이 오고갔다. 몽골 통계청 측이 표본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행정관리 부국장이 저녁식사를 주재했으며, 몽골 식당에서 몽골 보드카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추운 기후와 육식이 주식인 몽골이 왜 보드카를 즐겨 마시는지 알 것도 같았다. 둘째 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셋째 날

오전 몽골 통계청을 방문해서 행정관리국장님과 함께 몽골의 전통국가 축제인 나담축제가 열리는 국립경기장으로 갔다. 축제장 주변에는 내·외국인등 수많은 인파가 운집해 있었다. 축제시작 전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었다. 멀리 앞산에 백색의 돌로 징기스칸의 초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국립경기장에 입장을 해서 나담축제를 관람했다. 축제를 알리는 나팔소리와 함께 군악대와 칭기스칸 시대를 나타내는 각종 상징들이 등장했다. 몽골 대통령께서 친히 ‘나담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연설과 함께 과거와 현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퍼레이드 행렬이 이어졌다.

과거의 역사만큼이나 찬란한 복장과 각종 분야의 상징들 중에서 눈에 익은 모양이 있었다. 통역에게 물어보니 불교에서 쓰는 만자문양으로 몽골 불교의 일종인 라마교의 문양이라고 했다. 라마교가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 행렬 중에서 탈을 쓴 많은 모습이 우리나라의 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와 친숙한 형상들이었다. 각종 불교 천황의 모습을 한 퍼레이드가 함께 했다.

점심은 근처의 몽골식당에서 몽골요리로 식사를 했다. 축제기간이어서인지 외국인이 많이 눈에 띄었다. 나담축제를 보러오는 외국인이 많은 것을 미루어 볼 때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가는 것 같다. 점심식사 후 통계청으로 되돌아 와서 ICT분야의 발표를 했다.

개도국을 위한 전산자료처리시스템 연구와 무선인터넷 관련 발표를 했다. 전문분야여서 그런지 질문은 크게 세 가지였다.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신기술의 도입 방법과 유엔의 빈곤퇴치를 위한 새천년 프로젝트와 마지막으로 KOICA 협력사업과 관련된 질문이었다. 신기술 도입방법은 현재 우리 통계정보국이 당면한 주요현안 중의 하나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전산처리 시스템 구축시 몽골 전산관련 직원이 함께 참여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 설치 및 관리 방법을 함께 경험하면서 실제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 교육과 실기를 통한 전산기술 습득방법이다. 후자는 많은 시간과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천년프로젝트는 통계청과 별로 관련이 없는 사업이었고, KOICA협력사업은 방글라데시 전문가로서 방글라

데시 통계청 자문경험과 현재 KOICA가 추진 중인 방글라데시 통계청 자료처리시스템과 전산교육장 구축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려 주었다. 몽골 통계청에서도 KOICA에 한국 통계청에 위탁교육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일정을 마치고 울란바타르 시내에 위치한 전승기념탑을 방문했다. 2차 대전 중에 몽골과 소련이 연합해서 독일/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탑이다. 탑은 산꼭대기의 높은 곳에 설치되어서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곳이었다. 내려오는 길목에 서울시에서 설치한 거대한 불상이 세워진 공원이 있었다. 전승 탑을 방문한 사람들이 들려가는 코스로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서울시에서 기왕에 기증한 것인 만큼 사후 유지보수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저녁은 한국식당에서 오랜만에 한국식으로 몽골 행정부국장과 함께 식사를 했다.

넷째 날

몽골 현지 체험의 일환으로 테를지 국립공원을 방문하기 위해 출발했다. 도심을 벗어나서 몽골의 전통가옥인 게르를 직접 체험하는 자연 속의 생활인 것이다. 유목생활을 하는 몽골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대가 컸다. 가는 길에 슈퍼마켓에서 간단한 음료수 등을 준비해서 테를지를 향해 몽골 직원들과 함께 출발했다. 동서길이 2000km인 광활한 영토의 몽골임에도 도로 사정이 빈약해서 차량은 여행 중에 제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점이 못내 아쉽다. 중간 기착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한국의 것과 유사한 돌로 쌓은 몽골의 성황당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근처의 주변경관을 통해서 왜 몽골족이 말을 타고서 생활을 해야만 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아는 몇몇 유명한 영화의 대규모 전투장면이 몽골 초원에서 촬영되었다고 한다. 광활한 평야에서 수많은 군대가 전투를 하는 장면, 백제가 황산벌에서 5000명으로

신라의 수 만 명을 만나 치열한 전투를 했다는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실감이 나는 전투가 가능한 드넓은 광야임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테를지 국립공원을 향해가는 도중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모습은 말 그대로 기암괴석과 드넓은 벌판으로 혼자만 보기에 아쉬운 광경의 연속이었다. 마침내 테를지 국립공원에 도착하여 게르에 여장을 풀고 양고기로 야외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몽골의 자연을 경험했다. 오후에는 말도 타보고 칭기스칸 박물관도 방문해서 여러 유적을 돌아보았다. 쓸쓸하기 그지없는 한적한 곳에 게르를 이용해 여러 동으로 만든 기념관으로 방문객을 기다리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역사의 경쟁에서 패한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와의 공통점을 느끼게 되었다.

몽골 전통가옥 게르에서 유난히 크고 수많은 별을 가진 몽고의 하늘을 보면서 하루를 마감했다.

다섯째날

점심식사를 마치고 테를지 국립공원을 떠나서 울란바타르를 향해 길을 떠났다. 여행 중간에 낙타와 말도 잠시 타보기도 하면서, 몽골의 불교사원(Gandan)도 방문했다. 거대한 불상과 함께 슬픈 몽골의 역사가 우리는 맞이한다. 2차 대전 중 폭탄의 탄피를 만들기 위해 수 백년된 거대한 불상을 부셔서 녹였으며, 지금의 불상은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다시 건립했다는 슬픈 역사였다. 소련이나 일본제국주의가 한 만행을 다시 한 번 이곳 몽골에서도 볼 수가 있었다. 불상입구에 여러 개의 문자가 쓰여진 회전통이 놓여 있었다. 그 내용을 통역에서 물어보니, 옛날 후삼국 시대의 태봉의 궁예왕이 주창하던 ‘옴마니반메음’이라는 종교적인 문구였다. 참으로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봉의 궁예왕을 몽골에 와서 생각을 하다니 말이다.

통계청에 들어서 행정관리국장님을 예방하는 것으로 현지 일정이

모두 끝났다.

한국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1993년 인도 뭄바이에서 함께 인구학 공부를 하던 몽골 동창을 만났다. 약 15년이 지나건만 얼굴은 옛날 모습과 변함이 없었다. 근황을 물어보니, 통계청을 떠난 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현재는 UNDP에서 근무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를 물었더니, 일도 힘들고 보수도 적고 해서 현재의 직업을 선택했다고 한다. 40대 초반이 그녀가 손자가 있는 할머니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신기한 생각이 들었다. 몽고에서나 가능한 일인 것 같았다.

공항까지 행정부국장이 배웅을 나왔다. 비행기 시간까지 함께 자리를 해주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방문기간 내내 휴가도 미루면서 최선을 다하는 몽골의 젊은 인재의 모습에서 몽골 통계청의 장래를 낙관하면서 비행기에 올랐다.

2007년 5월 몽골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몽골 연합론을 제의했다. 역사와 전통을 같이하는 두 국가가 연합을 통한 밝은 미래를 만들자는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인구 250만에 석유를 비롯한 자원 부국인 황금의 나라 몽골과 대한민국이 대통합을 한다면 얻게 될 상호이익을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두 나라 간 통합이 결실을 맺고, 그 즐거운 날에 다시 대한몽골연합국 몽골주 통계청을 방문하는 날을 기대해본다.

2. NAADAM FESTIVAL(나담 축제)란?

몽골의 국가 공휴일 나담은 매년 7월 11일에 몽골에서 거행되며, 씨름, 승마, 활쏘기의 세 가지 주요 게임 등 국가 기념일 축제의 핵심 활동으로 구성된다.

전쟁은 웃으면서 하고 연습은 실전처럼 한다

1921년 7월 7일, 러시아 국경 도시 키아트(Khiagt)에서 독립전쟁을 벌이던 몽골의 영웅 수흐바타르가 울란바타르를 수복한다. 그날의 대포 소리(그 대포는 지금 울란바타르 시내에 있는 복드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200여 년간 청나라의 굴레에서 신음하던 몽골인들에게 희망의 축포이자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당시 몽골의 칸이었던 제8대 복드칸은 몽골의 독립을 축하하기 위해 대규모의 축제를 준비한다. ‘나담’, 몽골인들의 최고 축제이다.

‘놀이’란 뜻의 나담 축제는 2천년 전인 흉노 시대(기원전 3세기-1세기)부터 유목민들의 전 민족적 축제였다. 당시엔 “에린 고르반 나담”(Eriin gurvan naadam)이라 불렀는데, 남성의 세가지 놀이라는 뜻이다. 나담의 종목인 말경주, 씨름, 활쏘기를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현대에 와서 여자들도 활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씨름은 지금까지도 남자들만 참가하고, 말경주도 수컷말만 참가할 수 있다.

유목민들에게는 이 세 가지 놀이는 축제의 의미를 넘어선다. 그들은 전쟁 훈련 삼아 사냥을 하곤 했는데, 나담의 종목이야말로 사냥만큼 효과적인 전쟁 연습이었다. 유목민들은 병사와 백성 가릴 것 없이 모두 함께 흥겹고 역동적인 나담 축제를 즐겼다. 씨름을 잘 해야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고, 말이 잘 달려야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며, 말을 달리면서 활을 잘 쏘야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

나담은 정착민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인데, 오늘날엔 매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독립기념일의 의미를 부여한 것

인데, 그 날짜를 정하게 된 배경이 재미있다. 원래 수흐바타르가 울란바타르를 수복한 것은 7월 7일이었다. 복드칸은 그날을 기념해 축제를 준비했는데, 그날부터 쉬지않고 큰 비가 내렸다고 한다. 평균 강수량이 240mm인 나라 사람들에게겐 하늘의 축복이었겠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바람에 축제는 비가 그친 뒤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그날이 7월 11인, 오늘날의 나담 축제일이 된 것이다.

7월 11일 축제는 물론 전국 나담일이다. 각 아이막(도)과 각 сом(군)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참가하는 결승전의 의미이다. 이미 초여름부터 지역 대회들이 열리는데, 한해 나담에 참가하는 말만도 1만 마리에 이른다고 한다. 나담이 시작되면 대통령의 개회식과 함께 화려한 식전 행사가 진행되고, 세 가지 전통 놀이가 열린다.

첫 번째 행사는 ‘부흐’(몽골 씨름)이다. 경기장 중앙 잔디밭이 덩치 큰 씨름 선수들로 가득 찬다. 무려 1024명이다. 512강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어 256강전, 128강전, 64강전, 32강전이 계속해서 펼쳐진다. 32명의 선수가 남게 되면 그들에게는 ‘나친’(Nachin, 송골매의 일종)이란 칭호가 주어진다(우리말의 ‘수지니 날지니’를 몽골에선 ‘수친 나친’이라 부른다). 다시 승리한 16명의 선수에게 4품위인 하르차가(Khartsaga, 매의 일종이며 자기보다 더 큰 새도 잡아먹는 사나운 새) 호칭이 주어지고, 3품에게 ‘자안’(Zaan, 코끼리), 2품에게 ‘가르디’(Gardi, 신화속의 새), 1품에게 ‘아르슬랑’(Arslan, 사자)이란 칭호가 붙여진다. 최종 승자는 챔피언이란 뜻의 ‘아와르가’(Awarga)라 불린다.

선수들은 씨름 시합이 펼쳐지기 전에 춤을 춘다. 외국인의 눈에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수들은 춤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는 힘이 더 세다, 너를 이길 수 있다,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의식이다. 춤추는 모습이 꼭 하늘을 나는 매의 형상을 따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몽골인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크고 제일 힘이 센 새인 한가르디(Khan Gardi, 신화 속의 새, Khan은 가장 좋은 것에 붙는 접미사)의 모습을 보여야 최고라고 본다.

춤이 끝나면 본격적인 겨루기가 시작된다. 몽골 씨름에는 유목민들의 특징이 숨어있어 씨름을 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다. 넓은 초원에서 타인의 간섭 없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유목민들은 구속을 싫어한다. 그들은 시간이나 공간에 ‘계약’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던 사람들이다. 이사를 할 때도 날씨만 좋다면 오늘 해도 되고, 내일 모래 해도 되고, 제 마음대로 제 편한 대로만 움직이면 그만이었다. 이런 유목민의 마음은 현재의 씨름 시합에 많이 남아 있다.

씨름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폭 넓은 운동장이나 넓은 초원에서 펼친다. 가장 오래 걸린 씨름 시합은 1997년 7월 나담 축제 결승전 벌어졌던 시합인데, 이 시합은 무려 세 시간이나 걸렸다. 마지막 남은 선수 두 명이 세 시간 동안 시합을 한다는 것은 스포츠 마케팅의 관점에서는 가당치 않을지 모른다. 우리나라 씨름이나 일본의 스모는 몇 분 만에, 심지어 몇 초 만에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좁은 땅에서 수많은 인구가 사는 문화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언제나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무슨 일을 하든 “빨리 빨리”로 해야 하고, 시간은 초단위로 나누어 계산하며 살아간다.

씨름 선수의 복장도 특이한데, 등 부분만 천으로 가리고 앞은 끈으로 연결한 독특한 이 옷에도 역사가 숨어있다. 100여 년 전, 당시 최고의 씨름 선수가 있었는데, 그는 여러 해에 걸쳐 챔피언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선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

남성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경기에 여성이 참가했다는 것은 금기를 어긴 것이었다. 그 때부터 여성이 씨름에 참가할 수 없도록 앞섰던 옷을 입게 되었다.

씨름 경기장 밖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활쏘기 시합이 펼쳐진다. 옛날에는 말을 달리면서 움직이는 목표를 쏘는 경기였는데, 청나라의 지배를 받은 이후부터 마상 활쏘기가 아닌 서서 쏘는 시합으로 변했다. 청나라 측에서 몽골인들이 전쟁을 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의 ‘연습’이었던 나담을 ‘축제’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때부터 여자들도 시합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몽골 비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칭기스칸 동생인 카사르(Khasar)는 355ald(1ald는 팔을 길게 펼친 거리. 약 1.6m - 1.7m)에 있는 과녁을 맞췄다고 한다. 대략 580미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거리이다. 현재의 나담 축제 때는 남자는 70m 과녁, 여자는 60m 과녁 시합을 한다. 하지만 땅에 발붙이고 서서, 그것도 움직이지도 않는 과녁을 맞추는 활쏘기 시합은 세 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종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축제의 백미는 역시 말달리기 경주이다. 나담에 참가하려면 말을 관리하는데, 그 말들은 밤 9시에서 새벽 4시까지만 풀을 뜯고 그 외의 시간에는 풀을 뜯기지 않는다. 물도 조금씩 먹이고 많이 타지도 않는다. 겨울철에는 특히나 조금만 타는데 살이 찌지 않을 정도로만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말 경주에는 수말만 동원된다. 1살 말 경주, 2살 말 경주, 이렇게 3살, 4살, 5살 따로 따로 경주를 한다. 6살 말 대회는 없고 7살 말 이상은 어른 말이라고 하여 한꺼번에 경주를 한다. 5살 말까지는 어린 말이고 7살 말부터는 어른 말이라 하는데, 6살 말은

어른말도 아니고 어린말도 아니어서 대회가 없다. 말 기수도 3살에서 12살가량의 어린 아이들이다. 너무 무거우면 속도를 낼 수 없어 어린이들이 기수를 한다.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안장 없이 30Km를 완주하는 아이들도 많다. 안장도 없는 말을 타는 기술도 놀랍지만 더 가볍게, 더 가볍게 살아가려는 유목민의 정신을 보는 것 같다.

말 경주를 하면 1등부터 5등까지 상금을 준다. 상금 수여에서도 유목민들의 공정한 분배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 상금은 기수만의 것이 아니다. 말에게도 그만한 영광이 돌아간다. 몸값이 무려 500배쯤 뛰어오르고, 그의 땀을 만져보기 위해 사람들이 달려들어 아수라장을 만든다. 특히 말을 조련한 사람, 즉 숨어있는 공로자에게 더 큰 공이 돌아간다. 다리를 다쳐 전쟁에는 나가지 못했지만, 후방에서 활을 만들고 칼은 가다듬은 병사에게도 똑같은 전공을 내렸던 칭기스칸 군대의 전통인 셈이다.

맨 꼴등에게도 상품을 주는 전통이 있다. 꼴등은 ‘바양 허더드’(Bayan Khodood)라고 하는데, Bayan은 풍부하다, Khodood는 내장(內臟)을 뜻한다. 배에 기름이 끼었다는 조롱이 아니다. 꼴등에게 주는 상품이 양고기인데, 이번에는 꼴등을 했지만 그건 말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잘못해서이고, 다음에는 꼭 일등을 하라는 격려이다. 황소를 주듯 양고기를 주면서 꼴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나담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신화나 설화에도 자주 등장한다.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 멋있는 남자들이 모인다. 그러면 여자의 부모님은 나담 시합을 통해 최고의 신랑감을 뽑는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다. 한 가난한 젊은이가 나담 축제에서 일등을 차지해 부자가 되고, 장군까지 되었다는 내용도 있고, 만주 시대에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왕의 특별한 배려로 나담 축제에 참여했다가 일등을 차지해 왕명으로 사면이 되었다고도 한다. 지금도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최고의 덕담은 훌륭한 씨름 선수, 훌륭한 나담 선수가 되라는 것이다.

출처 : <http://blog.chosun.com>